

# 한국에서 발레와 문화적 정당성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은혜**

# 목 차

- 도 입 한국에서 발레의 현재와 과거
- 이론적 배경 (1) 문화위계, 정당성, 미디어  
(2) 선행연구 고찰
- 연구 개요 연구문제, 자료수집, 연구방법
- 연구 결과
- 연구 의의 및 제언



# 한국에서 발레의 현재와 과거

## 1. 현재

### (1) 대중화된 고급예술

: 유명 발레인의 팬덤 형성

수용자증가(유료관객 증가, 유아동발레, 취미발레)

### (2) 명실상부한 고급예술

: 한국 발레인들의 수상

예술계와 사회에서 발레를 고급예술로 인식

## 2. 과거

: 한국에서 발레의 위상이 현재와 다름을 증명하는 사료들이 존재



# 한국에서 발레의 선행연구

## 1. 한국발레에 대한 선행연구의 설명

마이너한 장르였던 한국 발레의 부상에 초점을 두면서,  
주로 예술계 내부의 역동에 의해 설명되어 옴

선구적인 발레예술가들의 노력(전문무용가, 대학 지도자 등)  
발레단의 활동(직업발레단, 전문발레단, 대학중심 발레단 등)  
뛰어난 자질을 갖춘 무용수들의 등장  
러시아 정통발레의 직접적 수혜  
그 외 사회문화적 변화 (국가의 지원, 수요증가, 국외 교류 등) 등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발레를 고급문화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  
앞에 제시된 한국발레의 위계변화는 간과되어옴



# 문화위계와 사회학

## 1. 예술의 위계변화에 대한 사회학의 설명(1)

사회학자들은 **예술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역사적 속성을 지닌다고 주장

(Becker, 1982; Wolff: 1983; DiMaggio, 1987, 1992; Levine, 1988; Bourdieu, 1993;  
Ferguson, 1998; Lopes, 2002; Baumann, 2007; Shumutz & Faupel, 2010)

문화의 분류가 사회에서는 특정 가치를 내재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상은 **계급의 구조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구조를 재생산하는 상징적 차원의 메커니즘임

(Bourdieu, 1978, 1979, 1984)



# 문화위계와 사회학

## 2. 예술의 위계변화에 대한 사회학의 설명(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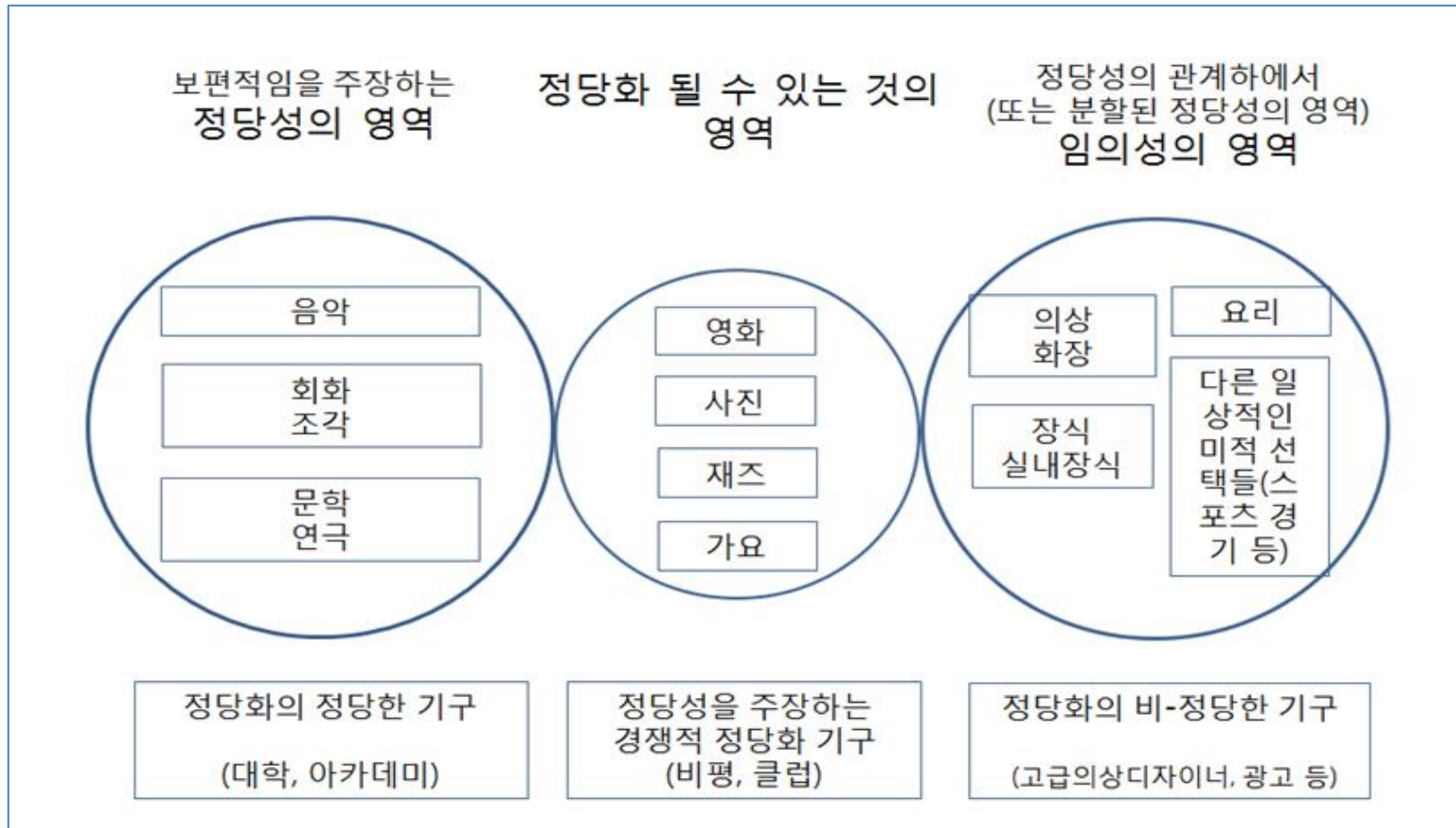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문화의 위계적 분류가  
지위 집단의 노력에 의해 불평등의 힘을 가리고,  
특정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강력하고 은밀한 기제로 활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  
(Gans, 1974; Bourdieu, 1979; DiMaggio, 1987)

위계적인 문화의 분류는 해당 문화의 **정당성**에 근거함



# 문화위계와 정당성

## 3. 정당성에 따른 예술의 위계적 분류(Bourdieu, 1965, 1993)





# 정당성과 미디어

## 4. 정당화의 심급으로서 미디어

후속연구에서,

**특정 예술장르의 정당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됨

(클래식음악, 대중음악, 퀴진, 문학, 영화 등)

미디어는 문화생산물에 대한 **정당화의 심급임** (Bourdieu, 1993, 1996)



ex> 문화비평가의 역할 연구

(Fine, 1996; van Rees & Vermunt, 1996 ; Corse & Griffin, 1997; Corse & Westervelt, 2002; Allen & Lincoln, 2004 )



# 선행연구

## 1. 문화적 정당성에 대한 선행연구(1)

정당화 담론의 구성방식이나 전략 등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가 우세함  
이에 대한 보도 중심 연구나 양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음

➔ 본 연구는 담론의 양(특히 언론보도 빈도, 양) 자체를

문화적 정당성의 지표로 삼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박선영, 1998; Janssen, 1999 ; 이상길, 2005; Janssen et al., 2008, 2009;  
Schumutz, 2009; 홍은희, 2012; 김경희·이기형·김세은, 2015; 박선이, 2016)

양적 접근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 선행연구

## 2. 문화적 정당성에 대한 선행연구(2)

선행연구에서, 정당화된 예술은 **남성** 지배적인 영역임

(Schmutz, 2009; Schmutz & Faupel, 2010 등)

여기에서 **여성**은 신체나 가족적인 삶 혹은 지엽적인 담론에

한정되어 있거나(Grau, 2002; Macleod, 2001),

저평가 받아옴(Ridgeway, 1997, 2009; Ridgeway & Correll, 2004)

- ➔ 한국에서 발레는 여성 지배적인 영역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위계변화는 주목할만한 연구지점임 (젠더의 영향은 어떠한가?)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1. 연구문제

미디어 보도의 증가를 해당 문화의 정당화의 지표로 간주할 때,

한국 미디어에서 **발레 보도의 양적 변화**는 어떠한가?

발레에 대한 기사건수와 기사량은 시기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발레의 정당화와 **젠더의 구성**은 관계가 있는가?

발레 보도량의 시기별 차이는 행위자의 젠더 구성비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2. 연구방법

**시기선정** 1955년부터 2015년까지, 총 21개년(1988년 기준,전후 3년 간격)

**대상선정** 조선일보(1920년 창간, 열독률 1위)

동아일보(1920년 창간, 열독률 3위)

경향신문(1946년 창간, 상기와 구별되는 논조 신문 중 열독률 1위)

**자료수집**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빅카인즈,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

동아일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발레 제목 지면기사 추출

(동음이의어 및 광고 제외, 온라인전용 기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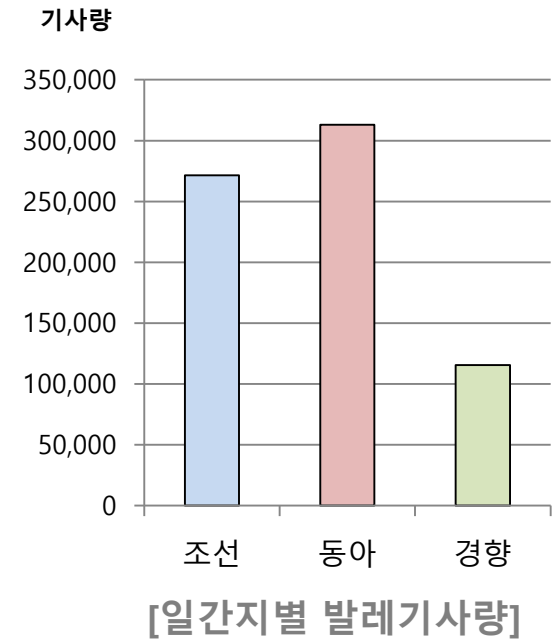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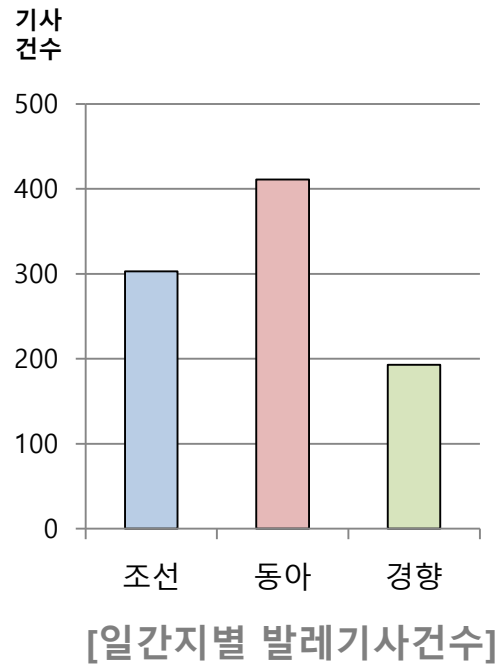
**연구방법** 양적 내용분석, 기사건수와 기사량(본문글자수) 측정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3. 자료 개요(1) (발레제목 지면기사, 1955~2015년 3년 단위)

구 분		계
조선	기사건수	303
	기사량	271,427
동아	기사건수	411
	기사량	312,941
경향	기사건수	193
	기사량	115,422
계	기사건수	<b>907(건)</b>
	기사량	<b>699,790(글자)</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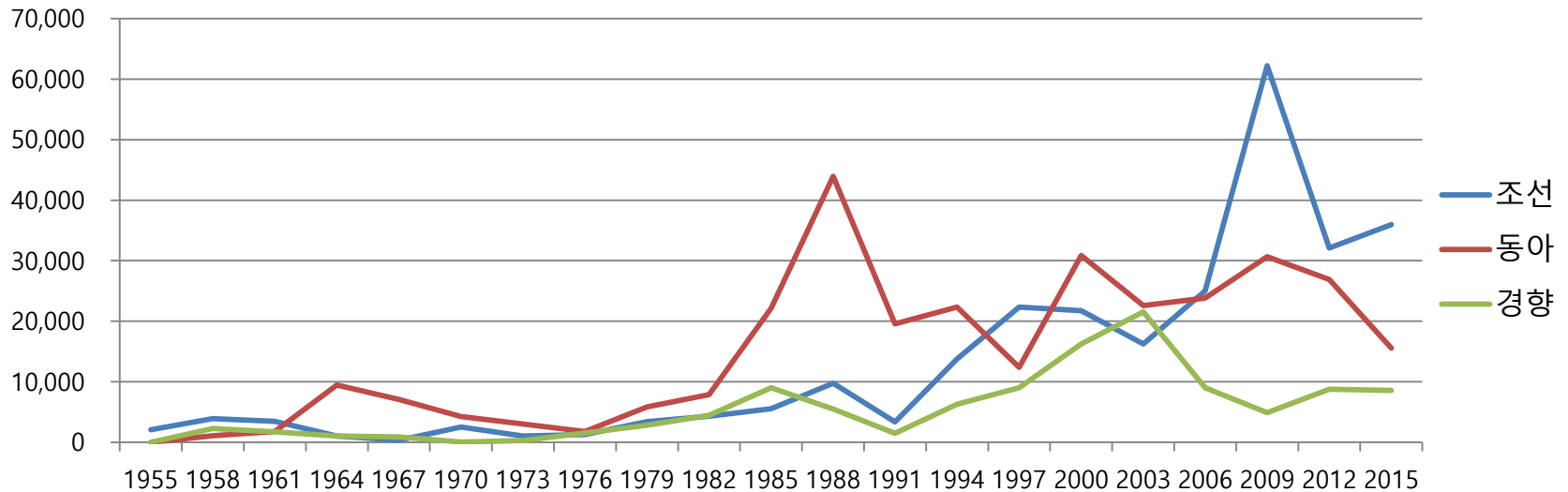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3. 자료 개요(2) (발레제목 지면기사, 1955~2015년 3년단위)

[일간지별 발레 기사량변화]



조선일보는 1997년, 2006년 이후에 발레 기사를 가장 많이 생산(1990년대 이후 보수언론의 대표)

동아일보는 1961년 ~ 1994년에 발레 기사를 가장 많이 생산(6,70년대에 고급지를 표방)

경향신문은 1991년 ~ 2003년에 발레 기사 확연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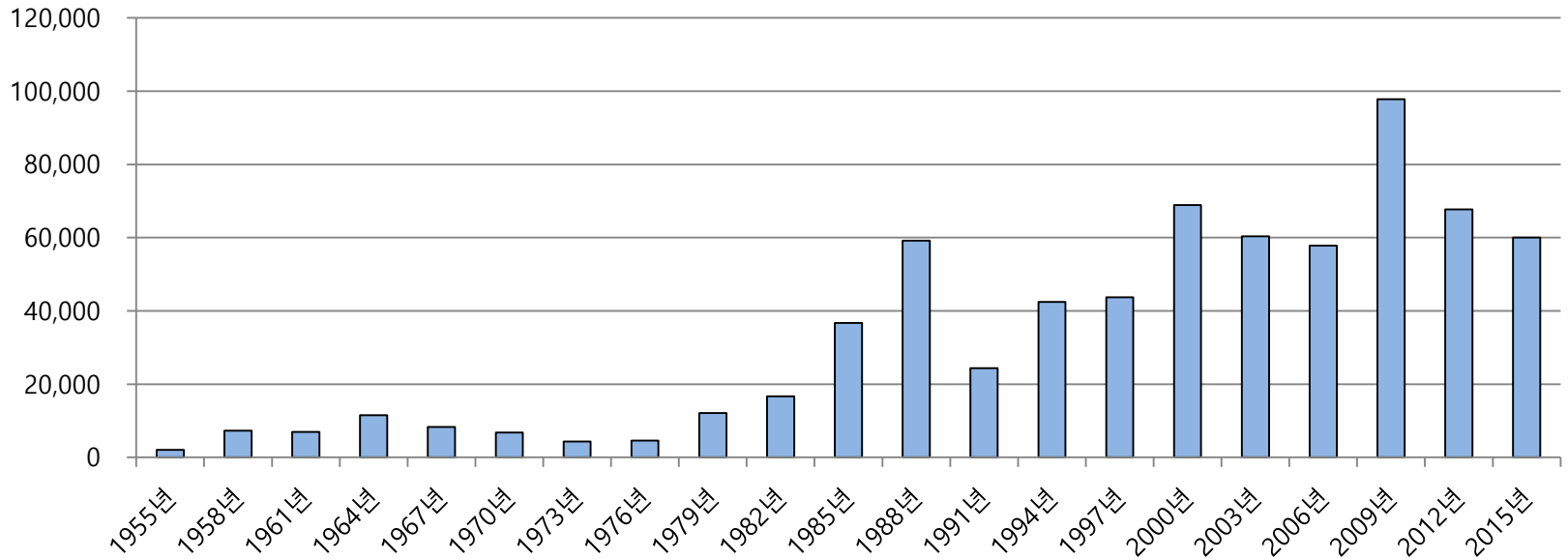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4. 결과\_ 정당성 차원(1) (일간지 지면변화와 발레)

한국의 발레 **기사량**은 1964~76년까지 감소, 1979년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  
전체적으로 볼 때, 발레 기사량은 증가세

발레 기사량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4. 결과\_ 정당성 차원(1) (일간지 지면변화와 발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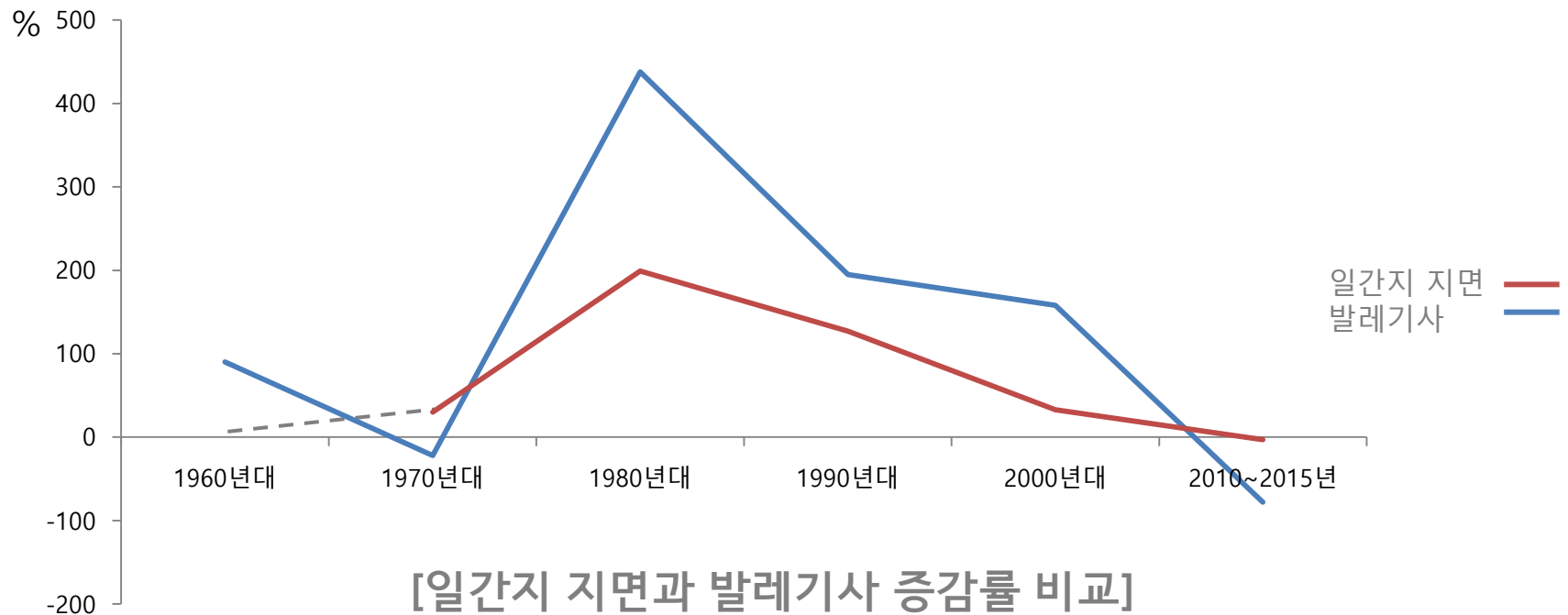
한국의 **일간지**는 1960년대 상업화 이후 꾸준히 증면, 1987년 문화면의 증가, 2000년대 후반부터 전체 지면감소시작, 2010년대 본격 감소

구분	박선영(1998: 24)		김남석(2002: 289)		박선이(2016: 83)	
	일간지 지면체제(면)	전 시기대비 증감	10개 일간지 지면평균(면/주간)	전 시기대비 증감	3개 일간지 총지면 전 시기 대비 증감율(%)	전 시기대비 증감
1970년대	8	↑	-	-	29.7	-
1980년대	12~16	↑	-	-	114.5	↑
1990년대	20~48 97년 이후 폭발적 증면	↑	164~200	-	127.1	↑
2000년대	-	-	(2000년) 246	↑	33.3	↑
2010~ 2015년	-	-	-	-	-3	↓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4. 결과\_ 정당성 차원(1) (일간지 지면과 발레기사 변화)



일간지 지면은 2010년 이후에만 감소, 이전에는 지속적 증가

발레기사는 1970년, 2010년 이후에 감소

발레기사의 증감률 > 지면수 증감률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4. 결과\_ 정당성 차원(2) (고급 vs.대중문화 기사구성과 발레)

[한국 일간지의 고급문화 /대중문화 기사구성 변화와 발레기사 변화 비교](단위%)

구분	박선영(1998: 47)		박선이(2016: 111 재구성)		발레 기사 변화
	고급	대중	고급	대중	이전시기 대비 발레기사 증감률
1960년대	58.3	37	39.2	8.8	-
1970년대	55.1	24	21.7	8.7	-12(15)
1980년대	41.9	37	10.6	5.8	137
1990년대	33.8	58	5.7	23.2	12
2000년대	-	-	14.4	8.8	30(73)
2010~2015년	-	-	18	7.9	-61

1990년대에는 고급문화보다 대중문화가 우세한 역전상황

- ➔ 대중문화의 급부상이라는 상황에서 발레 기사의 증가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임
- 일간지 증면과 문화기사구성과 비교했을 때, 발레는 정당성을 확보해온 영역임

# 여성적인 예술



그렇다면, 여성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발레의 정당화에  
**젠더**는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4. 결과\_ 젠더 차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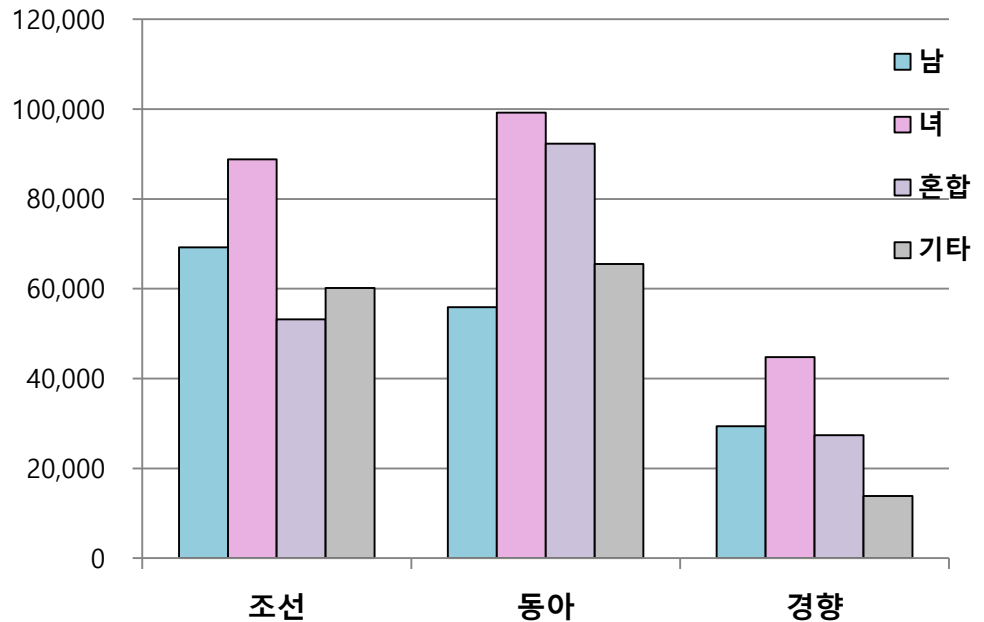
총 기사량(글자수)

699,790

조선 271,427

동아 312,941

경향 115,422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4. 결과\_ 젠더 차원(2)

총 기사량(글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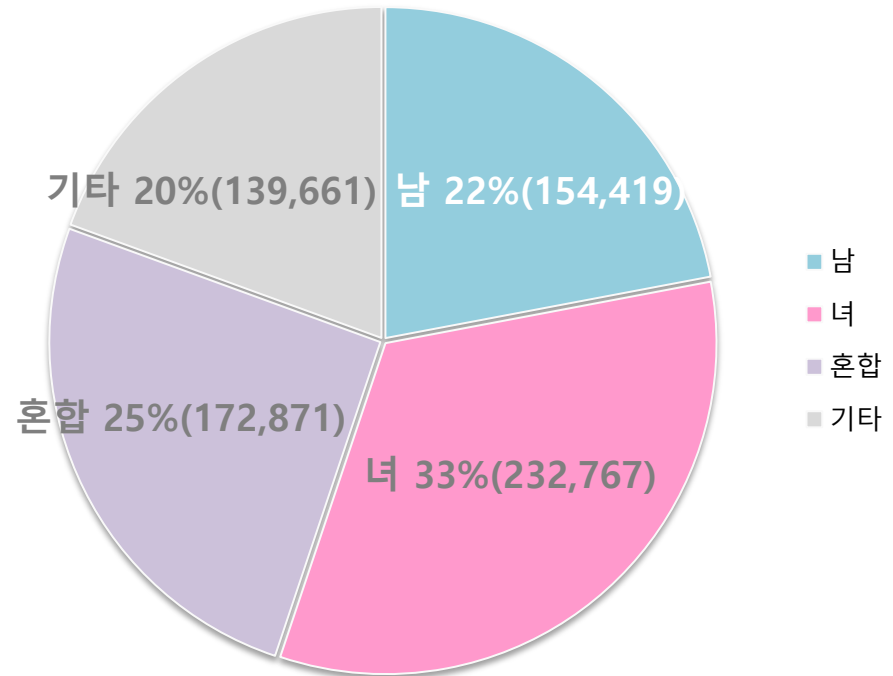
699,790

남 154,491

녀 232,767

혼합 172,871

기타 139,661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4. 결과\_젠더 차원(3)

[발레기사의 젠더비율 변화]

년도	젠더비율	년도	젠더비율
1955년	(4:0)	1988년	4.00
1958년	(7:0)	1991년	0.33
1961년	1.14	1994년	0.40
1964년	0.24	1997년	0.94
1967년	0.60	2000년	0.59
1970년	1.87	2003년	0.56
1973년	0.58	2006년	0.54
1976년	1.81	2009년	0.81
1979년	3.30	2012년	0.56
1982년	0.21	2015년	0.60
1985년	0.72		

(젠더비율 = 남성 ÷ 여성)

여성 > 남성: 14년(67%)

남성 > 여성: 7년(33%)

(총 21개년)

그렇다면,

문화적 정당성도

여성 기사 증가와 관련되는가?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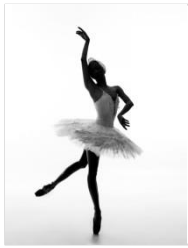
## 4. 결과\_ 젠더 차원(4)

[이전시기 대비 발레기사량 vs.젠더비율 증감변화 비교](단위 %)

년도	발레기사량변화	젠더비율변화	년도	발레기사량변화	젠더비율변화
1958년	256	( + )*	1991년	-59	-92
1961년	-5	( - )*	1994년	74	21
1964년	66	-79	1997년	3	135
1967년	-28	150	2000년	58	-37
1970년	-18	212	2003년	-12	-5
1973년	-36	-69	2006년	-4	-4
1976년	5	212	2009년	69	50
1979년	164	82	2012년	-31	-31
1982년	38	-94	2015년	-11	7

\* 젠더비율은 55년 (4:0) / 58년 (7:0) / 61년 1.14로 변화

총 20개 기간 중, 14년에서(70%) 발레기사량과 젠더비율변화가 동일한 방향으로 일어남  
 ∴ 발레기사량의 증가와 남성기사량의 증가는 관련이 있음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5. 결론

### 정당성 차원

일간지 지면증가와 비교했을 때

발레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

대중문화 기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발레기사는 증가함.

이것은 한국의 발레가 지속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흔적이라고 파악됨.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5. 결론

### 젠더 차원

전반적으로 발레가 여성 지배적인 것과 **달리**,  
발레기사량의 증가와 남성기사의 증가는 상관이 있음.

**이것은**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과  
젠더라는 불평등 구조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줌.



# 한국에서 발레의 문화적 정당성

## 6. 연구의 함의

### 의의

체계적 자료접근을 통한 장기간 자료 연구.

질적 자료의 양화 시도.

문화적 위계변화에 대한 예술외재적 접근 시도.

상대적으로 자료가 파편화 되어있고 접근이 어려운 고급문화에 대한 연구를 미디어를 통해 시도.

### 제언

문화매개자는 단순히 문화생산물과 문화소비자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같은) 지배적인 문화가치의 전파자 이기도 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국내연구가 더욱 확장되어야 할 필요.

감사합니다